

원자력폐기물 관리시설  
최종후보지 선정

科學技術處長官 發表文

# 掘業島를 廢棄物處分場의 最終候補地로

## 周邊地域을 으뜸가는 고장으로 育成計劃

지난해 12월 22일 金始中 당시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제1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굽업도를 원자력폐기물 관리시설의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문 전문을 실는다. (편집자)

### 發表內容 全文

오늘 저는 국가 현안과제이자 국민적 주요 관심사의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여 온 내용과 그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종 부지선정 경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의 50% 정도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병원,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 약 1,000여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중 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사용후원전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관련부대 시설 등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에서는 최적의 후보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및 전국 4개 지방대학, 한국자원연구소 및 한국해양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전문업체 등 여러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전국 210개의 도서지역, 292개의 임해지역, 90개의 폐광지 역에 대한 기술적 지질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

울러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하여 폭넓은 국민이해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 최종 부지선정 내용

상기의 기술적·지리적 타당성조사를 거쳐 1차적으로 59개의 후보지역이 도출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7개의 임해지역과 3개의 도서지역이 다시 도출 되었습니다.

이들 10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인문·사회 및 자연환경, 부지 이용성, 운영 용이성, 경제성 및 지역개발 효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역으로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굽업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에 적합한 응회암을 주암종으로 하여 암반 균열이 적은 단일암체로 구성되어 타지역에 비해 우수한 지질적 부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심이 깊어 항만건설에 유리하고, 거주주민이 10명에 불과하는 등 부지 이용성과 운영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지역지원 대책

앞으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을 다른 어느 지역 보다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지역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시설건설 및 운영기간 중 모든 수익사업의 우선권을 지역주민에게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과 관리시설에 근무할 과학자 및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 건설기간 중에는 매년 50억원, 운영기간 중에는 매년 30억원을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주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발전기금' 500억원을 조성해 드릴 것입니다. 이 '지역발전기금'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재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많은 견학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굴업도와 천혜의 경관을 지닌 덕적군도를 연계하여 해상관광단지로 집중 개발하고, 교통편의 대폭적인 보강을 통해 관광단지 개발을 뒷받침하는 등 시설입지로 인한 관광객 증가를 통해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시설건설로 인하여 어로작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 또한 없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시설지구에 건설될 항만시설을 민간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폭풍우시 피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근 어장을 주 생활근거지로 하는 어민들에게도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용진군 일원 및 인천지역에서도 시설입지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대한 지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안전성 보장대책

또한, 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종부지 지역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올바로 이해하고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시간, 장소, 횟수에 구애없이 실시할 것이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 언제라도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포함한 국내외 원자력시설 견학을 원하는 주민대표들이 관련시설을 직접 보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시설에 대하여는 부지내 설치될 각종 시설의 건설계획 및 건설중 건설후에 시설을 공개하고, 주민이 지명하거나 동의하는 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주민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는 주민환경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타 안전보장조치를 최대한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 맺음말

기자 여러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문제 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드물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국민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현안과제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이번 결정사항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